

## 성통합 교육을 통한 생도들의 성역할 정체감 및 여성 역할에 대한 태도 변화

김 광 은

공군사관학교

이 연구는 4년간의 성통합교육이 생도들의 성역할 정체감과 여성 역할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1997년부터 2001년까지 4년에 걸쳐 종단적인 방법과 횡단적인 방법을 통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종단적인 연구에는 성통합 첫해에 입학한 여생도 13명과 남생도 88명이 1997년과 1999년, 그리고 2001년에 세 차례에 걸쳐 참여하였으며, 횡단적인 비교를 위한 연구에는 2001년도에 입학한 여생도 17명과 남생도 183명이 참여하였다. 연구결과, 생도들은 남성적인 성역할 정체감이 우세하였고 이러한 성향은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성에 대한 태도에서 전반적인 여성 역할에 대한 태도는 여생도가 남생도보다 진보적인 성향을 보였다. 그러나 관리자로서의 여성이나 군조직 여성에 대해서는 여생도가 입학 초에는 남생도보다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나, 2학년 말을 기점으로 남생도보다 다소 낮거나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4학년 시기에는 여생도가 남생도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회복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가 성통합교육의 실태 및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1997년 공군사관학교에 처음으로 여자생도가 입교한 이래, 이들의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과정은 신문, 방송을 비롯한 여러 매체의 주요 관심사로 등장했을 뿐 아니라 사회적인 면에서도 양성 평등적인 가치를 실천한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사관학교에 입학한 여학생들에 대한 관심은

다수 남성 조직에서 생활하는 소수 여성들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 고정관념적인 여성 역할과는 정반대되는 특성이 요구되는 조직에 적용해 가는 여성들을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사회, 심리학적인 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이다.

사관학교에서 남녀가 함께 하는 교육 형태를 ‘공학(co-education)’이라는 용어보다는 ‘성통합(sex-integration)’이라는 사회학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오필환·김광은, 1997). ‘통합’은 ‘분리’와는 대조되는 개념으로 문화나 생활, 그리고 구성원의 수나 권력 면에서 다른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두 집단이 함께 공존하는 생활방식을 의미한다. 비록 사관학교의 여생도 비율이 전 생도의 10% 수준이고(사관학교 설치법 제 3조), 현재 우리나라 군대에서 여군의 비율이 2%에 불과하지만(국방부, 2000) 성통합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의 존재는 결코 무시될 수 없는 것이다.

사관학교나 군대에서 이루어지는 성통합에 대한 연구는 우리보다 20여년 앞서 사관학교의 문을 여성들에게 개방한 미국 사관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 가운데 DeFleur 등(1985)과 Stiehm의 연구(1981)는 사관학교에서 성통합이 이루어진 첫해에 입학한 생도들을 대상으로 4년간의 생도생활이 이들의 신념 및 태도, 진로발달,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사회화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포괄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에서 나온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여생도들은 남생도들에 비해 초기 생활적응은 느리지만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만회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성통합 초기 단계에서 여생도와 남생도는 여성 역할에 대해 상당한 태도 차이를 보인다. 즉 남생도는 여생도에 비해 여성 역할에 대해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다가 서로간의 접촉이나 훈련 경험이 증가할수록 이러한 태도 차이는 좁혀진다. 셋째, 소수 여성에 대한 지도부의 관심은 다수 남성들로 하여금 역차별 정서를 불러 일으켜 남녀 생도간의 통합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미 사관학교에서의 성통합의 역사가 사반세기를 넘어가고 있으므로 성통합 초기단계에서 보였던 이러한 문제는 상당부분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USAFA, 1984; 1992)

우리 나라는 올해 사관학교에서 성통합 교육이 이루어진 후에 첫 졸업생을 배출한 상태이므로 아직 이와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그동안 여생도 및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주로 공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오필환 등, 1997; 김광은, 1997; 1998; 2000) 최근에는 여자 생도들의 장교 임관을 전후하여 군내 여군 인력의 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김학준, 1999; 김종탁, 2000; 독고순, 2000).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 가운데 1997년에 김광은에 의해 수행된 연구의 후속 작업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형적인 남성 조직에 입문하는 여성들의 성역할 정체감이나 여성 역할에 대한 태도가 앞으로 이들의 조직 적응을 예언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성통합 첫해에 입학한 남녀 생도를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성역할 정체감 및 여성 역할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사관학교에 입학한 여성들은 남생도나 대학생들에 비해 심리적으로 ‘남성성’으로 분류되는 비율이 높았고 전반적인 여성 역할에 대한 태도나 관리자, 군 조직 여성에 대해서도 남생도나 남자 대학생에 비해 매우 진보적인 성향을 보였다. 이러한 세 가지 차원에서의 여성에 대한 태도는 상호 관련성을 갖고 있는데 즉, 전반적인 여성 역할에 대한 진보적인 태도는 관리자로서의 여성이나 군 조직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정적인 상관성이 있다. 이

러한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여생도들의 반응은 앞으로 4년간의 생도생활 적용에 낙관적인 기대를 갖게 하면서도 남녀 생도간의 여성 역할에 대한 상당한 태도 차이는 양 집단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생도들의 성역할 정체감 및 여성에 대한 태도가 4년간의 성통합 교육과정을 통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종단적인 방법 및 횡단적인 방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종단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사관학교에 처음으로 여생도가 입학한 기수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성역할 정체감 및 여성 역할에 대한 태도를 입학 초 및 2학년 말, 그리고 졸업을 앞둔 4학년 시기에 약 2년간의 간격을 두고 측정하여 그 변화를 보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에 병행하여 종단적 측정의 마지막 해인 2001년에 입학하는 기수를 새로운 연구 대상으로 삼아 이들에게도 동일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횡단적인 측면에서 학년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시도를 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가 성통합 첫해에 입학한 기수의 특성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성통합과정과 연관된 결과인지에 대해 보다 분명한 답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상과 같은 방법을 통해 나타난 생도들의 성역할 정체감은 '직업 군인' 같은 전형적인 남성성을 대변하는 진로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특성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로서 의미있을 뿐 더러, 예비 군인으로서의 강력한 재사회화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사관학교 교육이 '정체감 형성'이라는 발달과업을 가지고 있는 청년기의 생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생도 스스로 자각한 여성 역할에 대한 태도는 사관학교에서의 생활적용 뿐 아니라 임관 후 이들의 진로와 관련된 기대 및 포부 수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군대 조직의 성통합과 관련된 이슈에 많은 시사점을 주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삼군 사관학교 중 성통합 교육이 처음으로 실시된 공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사와 그 전통이나 규범, 그리고 교과과정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타 사관학교 생도들에게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 두고자 한다.

## 방 법

### 대 상

본 연구에는 크게 두 집단이 참여하였다. 집단 I은 1997년도에 입학한 공군사관학교의 200여명의 생도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여성의 수는 남성에 10%에 해당되는 18명이다. 이들에게는 1997년 3월부터 약 2년간의 간격을 두고 세 차례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종단적 분석의 자료로 사용된 것은 세 번의 평가에 모두 참석하고 개인 신상이 확인된 여생도 12명과 남생도 88명의 응답이다. 집단 I의 반응을 횡단적으로 비교해 보기 위해 표집된 집단 II에는 2001년도에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한 여생도 17명과 남생도 183명이 참여하였다.

## 도 구

성역할 정체감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임용자(1994)가 개발한 성역할 정체감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Spence와 Helmreich(1978)의 PAQ(Personal Attributes Questionnaire)를 국내 실정에 맞게 번안하여 타당성과 신뢰도 검증과정을 거친 것으로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의 성역할 정체감을 알아볼 수 있는 총 2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의 각 요인별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 는 .77에서 .90이다. 이 도구는 아직 성역할 정체감 유형(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미분화)을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 준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의 평균으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역할 정체감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성역할 태도는 Spence와 Helmreich(1978)의 단축형 AWS(Attitudes Toward Women Scale)와 국내에서 개발된 검사를 토대로 임용자(1994)가 제작한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전통적인 여성의 성역할을 사회적 권리와 자유, 가정의 권위적 구조, 여성적 성격, 직업 능력의 측면에서 살펴본 것으로 총 21문항의 리커트식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에서는 점수가 낮을수록 비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나타낸다. 이 검사의 전체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90이다.

관리자로서 여성 역할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Terborg 등(1977)이 제작한 WMS(Women as Manager)(Defleur et.al, 1985에서 재인용)을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조직 장면에서 여성의 생리적, 심리적 특징으로 인한 관리적 역할의 제한 및 특징에 대한 태도를 묻는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75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 조사에서 이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78로 나타났다.

군 조직 내 여성 인력에 대한 태도를 묻는 검사는 연구자에 의해 개발된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에는 사관학교 여생도에 대한 태도 및 여성 지휘관에 대한 태도, 전투 장면에서 여군 역할 등에 대한 태도들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작성 및 선정시 군내 지휘관 및 장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검사의 신뢰도는 75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 검사 결과 Cronbach  $\alpha$ 가 .94로 나타났다.

## 절 차

본 연구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생도들이 4년간의 성통합교육 장면에서 생활하는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다. 집단 I에는 종단적인 변화를 보기 위해 1997년 3월과 1999년 2월, 그리고 2001년 2월에 성역할 정체감 및 성역할 태도에 관한 조사가 실시되었고, 집단 II에는 횡단적인 학년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2001년 3월에 같은 조사가 실시되었다.

종단적인 변화를 보기 위한 집단 I의 자료는 개인 내 반복처치 설계를 이용하여 성별과 연도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 및 여성에 대한 태도를 변량 분석하였다. 한편 학년간의 차이를 횡단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2001년에 측정된 집단 I의 자료와 집단 II의 자료는 집단과 성별에 따른 이원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자료의 분석에는 PC용 SPSS를 이용하였다.

## 결 과

### 성역할 정체감

집단별 남녀 생도들의 성역할 정체감 평균 점수가 표 1에, 이를 변량분석한 자료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성역할 정체감의 종단적 변화를 분석한 자료에서 보면 생도들의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인 성역할 정체감은 측정 연도와 상관없이 일관된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반응은 '성역할 정체감'과 같은 심리적 속성은 이미 20세 이전에 안정된 속성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성차면에서 볼 때 남성적인 정체감은 남녀 생도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에 심리적인 여성성은 여생도가 오히려 남생도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경향을 보였다. 여생도들의 이러한 반응을 1997년도에 측정한 여자 대학생들과의 자료(김광은, 1997)와 비교해 보면 더욱 분명해 진다. 연

구에 의하면 여자 대학생의 남성성 점수는 52.81이었고 여성성 점수는 62.82로 나타나 여생도들의 반응과는 정반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렇게 여생도들의 심리적인 남성성 수준이 남생도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남성 중심적인 가치가 우세한 생도생활에서 이들의 적응을 보다 용이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정관념적인 성역할을 넘어 서려는 '역할 혁신자'로서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성통합적인 관점에서 다소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남성적 정체감의 우세가 여성 스스로 심리적 여성성에 대한 평가 절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성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느 한쪽 성으로의 흡수나 동화가 아닌 양성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데서 비롯된다고 볼 때 여생도들의 이러한 반응을 어떻게 해석하고 지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표 1. 집단별 성역할 정체감 평균(표준편차)

집단/연도	여생도		남생도		전 체		
	남성성	여성성	남성성	여성성	남성성	여성성	
I	1997	61.50(11.20)	52.75( 5.50)	59.32(10.98)	56.60( 7.63)	59.59(11.03)	56.05( 7.05)
	1999	63.72(11.93)	53.75( 9.29)	62.93( 9.13)	58.35( 7.04)	63.02( 9.45)	57.75( 7.47)
	2001	65.50(11.16)	52.00( 6.53)	64.28(10.00)	57.34( 6.24)	64.33(10.00)	56.74( 6.49)
II	2001	61.41( 8.69)	58.06( 9.70)	60.91( 8.73)	57.08( 7.50)	60.95( 8.71)	57.16( 7.69)

표2. 집단 I의 성역할정체감 변량분석

변량원	남 성 성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연도	260.086	2	130.043	2.513
성	13.669	1	13.669	.064
연도×성	30.963	2	15.481	.299

변량원	여 성 성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연도	.836	2	.418	.013
성	752.696	1	752.696	9.062**
연도×성	24.806	2	12.403	.395

\*\*p<0.01

한편 같은 시점에서 평가가 이루어진 집단 I 과 집단 II의 반응을 비교해 보면 두 집단은 심리적인 남성성 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렇게 4학년이 1학년에 비해 남성성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은 아니었으나 종단적인 평가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표3. 집단간 성역할정체감 변량분석

변량원	남 성 성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집단	404.713	1	404.713	4.373*
성	46.999	1	46.999	.508
집단×성	16.837	1	16.837	.182

변량원	여 성 성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집단	11.468	1	11.468	.210
성	1.810	1	1.810	.033
집단×성	22.998	1	22.998	.420

\*p<0.05

이러한 결과는 '리더십'이나 '용기'와 같은 남성적인 규범이 여전히 중요한 모토로 자리잡고 있는 사관학교의 특성상 이러한 요소가 학년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내면화되어 남성적인 성역할 특성을 강화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여성 역할에 대한 태도**

여성 역할에 대한 태도는 고정관념적인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견해를 묻는 척도와 관리자로서의 여성 역할, 그리고 군조직 여성 인력에 대한 척도를 통해 살펴보았다. 각 척도별 결과를 살펴보고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태도**

여성의 성역할에 태도는 점수가 낮을수록 진보적인 태도를, 점수가 높을수록 보수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태도에 관한 종단적 결과를 보면(표5, 그림1) 남녀 생도 모두 입학 당시보다 2학년이나 졸업 시점이 여성 역할에 대해 더 보수적인 경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여생도들의 경우 더욱 두드러져 이들의 점수는 2학년 시기에 4학년 정도에서 관찰될 수 있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비록 전 시기에 걸쳐 여생도가 남생도보다 여성 역할에 대해 진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반응이 2학년 시점에서부터 급격하게 감소해 가는 경향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표4. 집단별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태도 평균(표준편차)

집단/연도	여생도	남생도	전체	
I	1997	47.92(16.72)	71.57(16.69)	68.95(18.11)
	1999	54.92(18.12)	79.42(15.86)	76.85(17.69)
	2001	56.50(22.32)	75.06(17.10)	73.44(18.20)
II	2001	40.65( 5.43)	59.88(15.00)	58.21(15.40)

표5. 집단 I 의 여성의 성역할 태도 변량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연도	1449.323	2	724.662	5.072**
성	12217.25	1	12217.25	20.330**
연도×성	110.447	2	55.223	.386

\*\*p<0.01

횡단적인 면에서 1학년과 4학년의 집단 반응을 비교해 보면(표 6) 1학년은 4학년에 비해 여성 역할에 대해 진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도 여생도들은 남생도보다 여성 역할에 대해 훨씬 더 개방적인 성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반응이 단순히 시대 변화에 따른 반응인지, 아니면 이번 신입생이나 성통합 첫째 입학생들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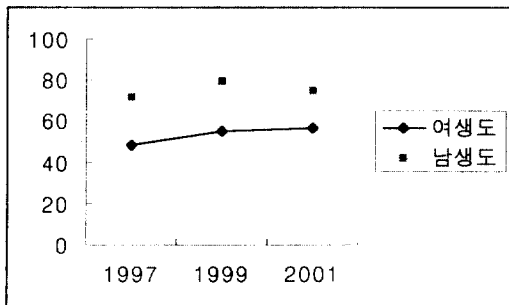


그림1. 집단 I 의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태도 변화

그러나 올해의 입학한 남생도들의 여성에 대한 태도가 4학년 여생도의 수준만큼 개방되어 있다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성통합 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리잡아갈 수 있음을 예견해주는 긍정적 지표로 생각된다.

표6. 집단간 여성의 성역할 태도 변량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집단	3015.164	1	3015.164	13.024**
성	1894.945	1	1894.945	81.182**
집단×성	984.627	2	984.627	4.593

\*\*p<0.01, \*p<0.05

#### 관리자로서 여성에 대한 태도

관리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종단적인 태도 변화를 보면 여기에서도 연도별 증가에 따른 차이가 의미있게 나타나고 있다(표 8). 이러한 차이는 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여생도의 경우는 입학 초기에 남생도보다 월등하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가 2학년 말에는 오히려 남생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며 이는 4학년 말에 다소 회복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남생도의 경우, 학년 증가에 따른 태도상의 큰 변화는 없으나, 미약하나마 관리자 여성에 대해 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표7. 집단별 관리자 여성에 대한 태도 평균(표준편차)

집단/연도	여생도	남생도	전체	
I	1997	105.17(13.31)	92.18(12.68)	93.47(13.01)
	1999	89.92(13.06)	91.93( 9.74)	91.77(10.16)
	2001	96.40( 8.81)	89.06( 8.01)	89.85( 8.42)
II	2001	92.60( 4.69)	91.66( 8.02)	91.73( 7.81)

표8. 집단 I의 관리자 여성에 대한 태도 변량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연도	857.384	2	428.692	4.307*
성	969.802	1	969.802	6.879**
연도×성	737.765	2	368.883	3.706*

\*\*p<0.01, \*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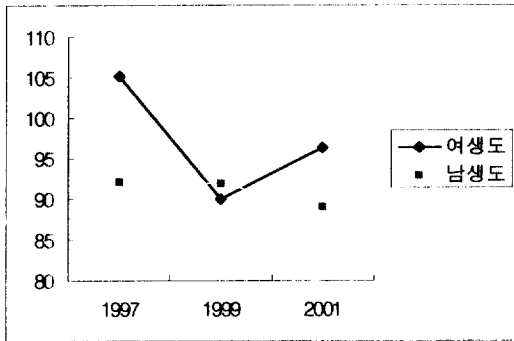


그림2 집단 I의 관리자로서 여성에 대한 태도 변화

앞에서 본 여성에 대한 태도에서처럼 여생도들의 경우 2학년 말에 관리자로서 여성에 대한 태도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어 이러한 현상의 의미에 대해 집중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관리자로서 여성에 대한 횡단적 비교에서는 학년간이나 성별 간에 아무런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반응은 앞서 살펴본 여성역할에 대한 태도와는 대조되는 것으로 이러한 반응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성 역할에 관련된 다른 영역에서의 태도와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 군조직 여성에 대한 태도

생도들의 임관후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군조직 여성에 대한 자료가 다음에 제시되어 있다.

표9. 집단별 군조직 여성에 대한 태도 평균(표준편차)

집단/연도	여생도	남생도	전체	
I	1997	136.58(18.05)	112.38(16.72)	115.04(18.34)
	1999	105.30(15.84)	108.28(11.95)	107.95(12.37)
	2001	109.33(11.03)	103.67(12.29)	104.25(12.22)
II	2001	103.69( 9.06)	108.66( 9.95)	108.24( 9.96)

표10과 그림 3을 통해 군 조직 여성에 대한 중단적 변화과정을 보면 여기에서도 관리자 여성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즉 여생도들은 입학 초기에는 남생도보다 이 분야 여성에 대해 훨씬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2학년 말에는 오히려 남생도보다 낮은 점수를 보이며 이러한 반응은 4학년 시기에 약간 회복된다. 남생도의 경우 여생도처럼 극적인 변화는 없지만 군조직 여성에 대한 이들의 태도는 학년 증가에 따라 다소 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10. 집단 I의 군조직 여성에 대한 태도 변량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연도	4375.523	2	2187.761	12.298*
성	1467.030	1	1467.030	6.070*
연도×성	1855.194	2	927.597	5.242*

\*\*p<0.01, \*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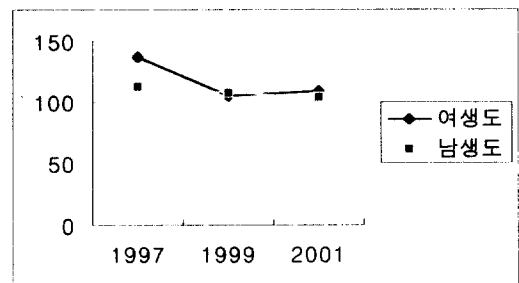


그림3. 집단 I의 군 조직 여성에 대한 태도 변화



횡단적인 면에서 현재의 4학년과 1학년의 반응을 비교해 보았을 때 집단이나 성별간에 아무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반응 역시 관리자로서 여성에 대해 보여준 반응과 공통되는 것이다.

## 논 의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해 보고 이러한 결과가 성통합교육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에 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먼저 성역할 정체감면에서 보면 생도들은 남성적인 특성이 높으며, 특히 이러한 성향은 성통합 첫해에 입학한 여생도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남성적인 정체감은 학년 증가에 따라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역할 정체감이 진로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나(Yanico, 1981), 여성으로서 전형적인 남성적인 진로에 관심을 갖는 여성의 경우 남성적인 특성을 소유한 경우가 많다는 점(Marshall & Wijting, 1980; Orcutt, 1979)에서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또한 사관학교가 지향하는 교육 목표나 생활 특성상 이러한 남성적 특성이 생도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내면화되어 학년이 올라갈수록 남성적 특성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실제 생도생활에서 남성적인 특성이 높은 생도들은 생활적응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김광은, 1998), 일반적인 조직 장면에서도 심리적인 남성성은 사회적인 유능감과 직결되어 있어 이러한 특성이 높은 사람은 조직 적응이나 생활 만족

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방희정, 1996).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성적인 성역할 정체감이 생활 적응 및 사회적 성취에 도움이 된다고 해도 전적으로 남성성만이 인정받고 존중되는 분위기는 성통합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관학교에서 여생도를 받아들이면서 이들에게 기대했던 역할은 기존하고 있는 남성 문화나 규범에 전적으로 동화하는 방식은 아니었을 것이다. 오히려 이들에게 기대한 역할은 군대가 갖고 있는 고유 속성을 살리면서도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무시했거나 평가절하했던 '부드러움'이나 '사려깊은' 혹은 '세심함' 과 같은 여성적인 특성의 발현을 통해 좀더 민주적이고 다양한 조직 변화를 시도하는 역할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여성성을 재인식하고자 하는 작업은 기존하고 있는 남생도나 남성 군인들에게도 지금까지 남성적인 특징이 강조되고 인정되는 분위기 때문에 그 표현이나 수용이 어려웠던 자신의 '여성성'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새로운 리더십의 형태로 조직 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성통합 과정에서는 지금까지 강조되고 적극적으로 표현된 남성성 이외에도 감추어지고 개발되지 않았던 여성성에 대한 과감한 인정과 개발을 통해 사관학교를 비롯한 군 조직에서 양성적인 특성이 평등하게 인정받고 격려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성통합 첫해에 입학한 여생도들의 여성에 대한 태도는 입학 초에 보였던 매우 진보적인 성향이 생도생활 중반기에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4학년 시기에 다소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반응은 여성 역할에 대한 세가지 태

도, 즉 고정관념적인 여성 역할, 관리자로서의 여성, 군조직 여성에 대한 태도 모두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이러한 모습을 사관학교에 입학하는 여학생들의 일반적인 적응 패턴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여자 생도들은 남자 생도들에 비해 생도생활 초기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오히려 남생도 이상의 성취를 보인다는 것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성통합이 실시된 미국 사관학교 연구 결과에서 보고된 바 있다(DeFleur et al, 1985). 우리 나라에서도 입학 후 1년간 이들의 생도생활 적응과정을 추적한 연구(김광은, 1998)에서 여자 생도들은 남자 생도에 비해 학업 분야의 성취는 떨어지지 않았으나 생도로서의 행동 규범을 익히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내무생활이나 정신건강 면에서는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구성원의 비율이나 지향하는 가치면에서 아직 남성 중심적인 전통이 강한 사관학교에 상당한 동기와 지적인 능력을 가진 여성이 들어왔다 해도 이곳에서의 초기 적응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생도생활 중반기에 보였던 자신을 포함한 여성들에 대해 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털어내고 졸업 시점에서는 다시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성통합 첫해에 입학한 여생도들의 이러한 태도 변화 패턴은 성통합 교육이 자리잡아 가면서 이후에 입학한 여생도들에게 이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이러한 패턴이 보편적인 여생도의 모습이라기 보다는 성통합 첫해에 입학한 여생도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

이다. 어떤 분야에서나 초기 개척자들은 자신들의 역할이나 역량에 대해 상당히 높은 포부나 기대를 갖게 마련이다. 이러한 점은 사관학교를 처음으로 지원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공군사관학교 평가관실, 1996)에서 많은 여학생들은 ‘여성으로서 선구자가 되고 싶어’ 라고 응답한 비율이 ‘조종사나 군인’, 혹은 ‘진로 보장’ 과 같은 응답에 반응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반영되고 있다.

포부나 기대가 클수록 현실이 이상과 일치하지 않을 때 이들의 좌절은 더욱 극대화되어 나타날 수 있다. 아마도 생도생활 중반부에 보인 여성 역할에 대한 낮은 태도 수준은 이러한 측면과 관련있어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보다 4년 뒤에 입학한 여생도의 경우 일반적인 여성 역할에 대한 태도는 선배 여생도 이상으로 진보적이지만, 실제 이들의 생활과 관련된 관리자로서의 여성이나 군 조직 여성에 대한 태도는 남생도들이나 이미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조정을 거친 4학년 여생도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생도의 입학을 진후하여 생도생활에 대한 대중적인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막연한 기대와 포부로 입학 결심했던 선배들과는 달리 점점 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사관학교를 지원하는 여학생이 더 많아졌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아직 이러한 여생도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나 연구가 없기 때문에 일률적인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생도들이 입학 초에 지녔던 여성 역할에 대한 진보적인 태도가 실제 생도생활이나 군대 생활에서도 긍정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여생도 자신의 노력 뿐 아니라 이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지도부의 성통합에 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이다.

셋째, 성통합 과정을 통해 남생도들의 여성 역할에 관한 태도는 여생도보다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태도 수준은 4년내 큰 변화 없이 유지되거나 더 보수적으로 되어 간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여성 역할에 대해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은 대학생 집단에서도 관찰될 수 있는 것으로(김광은, 1997) 이 것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문제는 4년간의 성통합 과정에서 이러한 태도가 거의 변화가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긴 하나 오히려 더 보수적으로 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미공사의 연구 결과(DeFleur et.al, 1985)와는 대조되는 것으로 미국의 경우 남생도들의 여성 역할에 대한 태도는 시간 경과에 따라 긍정적인 태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남자 생도들의 여성에 대한 태도 수준은 남자 대학생과 비슷하거나 약간 진보적인 영역도 있어 남자 생도의 태도만이 문제될 수는 없겠지만 성통합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결과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원인으로 기존의 연구들은 소수 여생도들에게 주어지는 관심에 대한 남생도들의 역할별 정서나 남자들만의 문화와 전통을 단절시킨 여생도들에 대한 거부감, 본질적으로 사관학교를 포함한 군대 조직은 여성에게 적합치 않다는 생각 등을 들고 있다.

남생도들의 반응과 관련하여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올해 입학한 남자 생도들의 태도이다. 이들은 성통합 첫째에 입학한 남생도에 비해 일반적인 여성 역할에 대해서 훨씬 진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직 이들의 반응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올해의 입학한 남생도들의 이러한 성향이 우리 나라 남성들의 변화된 의식 수준을 반영하는 것인지 확실치 않지만 그 출발에서부터 이전의 선배들보다 여성에 대해 열린 시선을 갖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의 남녀 생도가 함께 생활하는 성통합 과정에 대해 낙관적인 기대를 갖게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에서 시사받을 수 있는 것은 많은 남성 중심 조직에서 아직 그 숫자나 영향력 면에서 낮은 위치에 있는 여성들은 이들의 능력이나 동기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현실적인 장면에서 강화되어 발현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조직 장면에서 성통합의 근본적인 취지가 제대로 발휘되려면 특히 조직을 이끌어 가는 지도자나 정책입안자들이 여성들의 능력과 동기를 제한하는 조직 안팎의 심리적이고 사회적 제약들에 대해 좀더 민감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통합과 관련된 변인을 '성역할 정체감'이나 '여성 역할에 대한 태도'와 같이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살펴보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심리적인 변인 이외에도 성통합과 관련된 이슈에서 항상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여성의 생물학적 특징이나 조직의 특성과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생도 집단만을 대상으로 이들의 변화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들의 성역할 정체감이나 여성 역할에 대한 태도 수준이 보편적인 인구 집단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갖

\* 1) 김광은의 연구(1997)에서 남자대학생의 여성역할에 대한 태도 점수는 일반적인 성역할에서는 74.2, 관리자 여성은 85.1, 군조직 여성은 104.0으로 나타난 바 있다

는지에 대해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설명할 수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생도들의 결과를 객관적 준거에 비추어 볼 수 있는 통제 집단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공군사관학교 평가관실(1996), 공군사관학교 지원자 설문조사, 미간행 자료

국방부(2000), 여성인력 활용 확대 계획, 미간행자료

김광은(1997), “성통합 초기 단계에서 생도들의 성역할 정체감 및 여성의 역할에 대한 태도”, 한국심리학회지:여성, Vol. 2, No.1, 102-114

김광은(1998), “남녀 생도 생활적응 과정 연구:입교후 1년간 추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여성, Vol. 3, No.1, 148-160

김종탁(2000), “여군 인력구조의 획득 및 발전 방향 모색”, 여군창설 50주년 기념 여군발전 심포지움 자료,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김학준(1999), 공군내 여성인력의 활용에 관한 연구-조직사회화 전략을 중심으로-, 공군고급지휘관 참모과정 졸업논문

독고순(2000), “여군의 역할과 과제”, 여군창설 50주년 기념 여군발전 심포지움 자료,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오필환·김광은(1997), 남녀 생도 통합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 공군사관학교 국고지원과제 연구보고서

임용자(1994), 성역할 관련요인이 여대생의 진로 결정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박사학위

### 청구논문

DeFleur, L. B. Wood F., Harris, Gillman D., Marshk, W(1985), Integration at the United States Air Force Academy: Problems and Issues, USAFA

Marshall, S. J. & Wijting, J.P.(1980), Relationships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sex-role identity to college women's career orient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s*, 16, 299-311

Orcutt, M.A. & Walsh, W. B.(1979), Traditionality and congruence of career aspirations for college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s*, 14, 1-11

Spence, J. T. & Helmreich, R.(1978), *Masculinity and Femininity*,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Stiehm, J.H.(1981), *Bring me men and women*, Univ. of California Press

USAFA(1984), Report on the integration of women into cadet wing, USAFA

USAFA(1984), Performance of women in the classes of 1980-1995, USAFA

Yanico, B. J.(1981), Sex-role self concept and attitudes related to occupational day-dreams and future fantasies of college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s*, 19, 90-101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01. Vol. 6, No. 2, 1 - 13

---

# The change of sex role identity of cadets and their attitudes toward women over the four year sex-integrated education

Kwang Un Kim

Korea Air Force Academy

The study is to show the change of sex role identity of cadets and their attitudes toward women over the four year sex-integrated education at the Korea Air Force Academy. Longitudinal method and cross-sectional method are adopted to carry out this study during the period of 1997 -2001. In longitudinal research, 13 female cadets and 88 male cadets from the class of 1997 are participated in 1997, 1999 and 2001 years. For the comparison of the result of longitudinal research, 17 female cadets and 183 male cadets from the class of 2001 joined in cross sectional research.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cadets have more masculine identity than feminine identity and this trend is more visible in senior years than in junior years. Female cadets show more progress attitude in general women' role than male cadets. In attitudes of women as manager and military women, female cadets' attitude more progressive than male cadets in first grade, but this trend is decreased in the end of second grade and it recovered in fourth grade. The results are discussed in the present state of sex-integrated education and tasks of it.